

왕이 오신다! 마태복음21:1-17

도입부 – “그건 예상 못 했어요!”

여러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 놀라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뜻밖의 말을 하거나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은 종종 우리의 기억에 강렬히 남게 됩니다. 약 30년 전, 제 아내 테레사와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시절, 보츠와나 중부에 위치한 칸예라는 마을로 결혼식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저희의 절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초대를 받은 것이죠. 친구인 딘틀과 그녀의 네덜란드인 남편 피에트는 우리에게 교회를 장식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기꺼이 돕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정된 오전 11시 시작 시간 직전에 교회를 멋지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교회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보츠와나에서는 행사가 정시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축제든 예정된 시간보다 최소 한 시간, 때로는 두세 시간이 지나야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끝낸 뒤, 피에트와 저는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정부 차량들이 자갈로 된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켈트 마시레 경이 이 가족과 친척 관계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는 나이 많은 품위 있는 신사였고, 18년 동안 국가를 유능하게 이끌다가 평화롭게 권력을 접은 세대에 물려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이미 모인 몇몇 친척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교회 한 쪽에서 있는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둘을 쳐다보며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긴장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존경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프리카의 전직 대통령은 피에트와 저,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자신의 시계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시간을 지킬 줄 아는 건 우리 백인들밖에 없는 것 같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피에트와 저는 그의 말에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다행히 마시레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30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을 하고,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만남을 떠올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기록된 사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그 날의 사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은 일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들 역시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 왕을 만났지만, 그 왕은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는 스가랴 선지자의 설명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로 임하니.” 그리고 몇 절 뒤, 마태는 모든 사람이 던졌던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날의 사건들을 깊이 살펴보면, 메시아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왕의 칭호와 함께 세 가지 질문을 꺼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왕국의 총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1. **오시는 왕** – 왜 중요한가요?
2. **겸손한 왕** – 그는 어떤 왕인가요?
3. **구원자 왕** –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요?

1. 오시는 왕 – 왜 중요한가? (대립적 시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의 지상 생애 마지막 주, 곧 죽음과 부활로 마무리되는 그 주가 이전 33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읽는 복음서에 따라 1/4에서 1/2에 해당). 마태복음에서 이 역사를 정의하는 주가 바로 21장 초반부에서 시작됩니다.

종려주일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이나 시골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은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의도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20장 30절에서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무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들의 선언의 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정체성을 받아들이시는 동시에 구원자 왕의 역설적인 본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모두 읽어본 지금,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더 잘 알았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각본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최소한 5개의 구약 예언과 선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내러티브에 “예언 성취 인용”을 많이 삽입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와 같은 설명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스가라의 예언 성취 인용 외에도, 마태는 군중들의 두 가지 자발적인 외침을 기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21:9, 15), 그리고 시편 118:26에서 인용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 성경에서 온 두 가지 증언(이사야 56:7, 예레미야 7:11)으로 설명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찬송도 시편 8:2

를 인용하며 미리 예비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평범하거나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셨습니다.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 근처 벳바게 마을로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요청은 다소 특이해 보였기에, 예수님은 혹시 그들이 나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대답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21:3).

이 사건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벳바게가 베다니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그의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벳바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분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필요하시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선생님”, “치유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순종을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를 타시며, 짐승의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

“보라, 네 왕이 오신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왕은 권력과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왕이 오신다!” 이 문구를 되새기며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왜 중요한 걸까?” 예수님이 오시는 왕이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대답은 이미 이 이야기의 첫 몇 구절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왕이라면, 그의 제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명에게 “너희 앞에 있는 마을로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묻지 않았고, 동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배운 교훈을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나귀와 그 새끼를 가져갈 때 사람들이 질문할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를 지시한 부분에서 더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주가 필요하시다”라고 말하라 하셨고, 그러면 즉시 보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즉 왕께 순종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매우 반문화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자기 자율성에 대한 욕망, 즉 자기중심으로 왕처럼 다스리려는 욕구는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좋은 친구인 켄 에소(Ken Esau) 교수는 예수님의 왕권에서 벗어나려는 세 가지 가지 복음을 정리한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는 복음(Get out of

Jail Free Gospel)”, “힙스터 복음(Hipster Gospel)”, “메르세데스 벤츠 복음(Mercedes Benz Gospel)”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는 복음”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잘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신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합니다. 이 버전에서는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긴 하지만, 현재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서는 제자도, 교회 참여, 세상에서의 사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살고 천국에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거나 헛된 기대의 ‘그림의 떡’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복음인 “힙스터 복음”은 우리의 현재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 사랑, 정의를 자신들의 진보적 또는 깨어 있는 세계관으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예수님께 왕으로 복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는 복음”과는 달리, “힙스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평화와 사랑, 정의와 동일시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예수님께 복종할 필요를 제거하고, 자신들이 정의한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죄, 순종, 회개는 자신들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많아야 좋은 본보기일 뿐 결코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복음”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오랫동안 부유함, 사치, 개인적인 성취와 연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복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다가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순종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이 부유한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하늘의 부를 나누어 주는 기회입니다. 이 복음은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일부는 이러한 복음들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각 복음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참된 복음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왕좌에 우리 자신을 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이러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다양한 버전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종류의 메시아 왕을 원했지만, 왕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들은 우리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2. 겸손한 왕 – 그는 어떤 왕인가요? (역설적인 왕)

방금 전 한 제 발언이 여러분 중 일부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불편합니다. 왕에게 복종하고, 내 모든 신뢰와 존재를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쉽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든 왕들과 다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스가랴의 예언적 인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왕이라는 공적인 선언임을 나타냈습니다(스가랴 9:9).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예수님의 왕권의 본질을 상징했습니다 – 그는 겸손하신 왕입니다. 고대의 황제들과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적들을 폭력적으로 정복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전차를 타거나 전쟁용 말을

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종들이 타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셨지만, 다른 어떤 왕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전투에 나가는 장군은 틀림없이 전장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 곧 다가올 십자가 처형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적인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구원자로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앞 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리가 될지를 두고 논쟁하던 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5-28)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의 왕국의 참된 본질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 걸옷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약 두 세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카비 혁명 당시 시리아의 압제자들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때 성전에서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적을 무찌를 전쟁 영웅이나 군사 지도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절에서 군중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는 흔히 “호산나”를 찬양의 선언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자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입니다. 아람어 단어 호산나(Hosanna)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소위 복음들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게 들리나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며, 새로운 유대 왕조를 세우러 오셨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죄와 악,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외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을까요?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존경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왕이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왕은 아니다. 너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와 나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정치적 전사인 왕은 너희를 죄,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인종차별, 탐욕, 증오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는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왕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군사적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전투에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이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 종려주일의 모든 사건 위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역설입니다 – 그분은 오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겸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죽음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3. 구세주 왕 –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변화적)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성이 모두 떠들썩해지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한 대답은 흥미롭고 약간은 반전적입니다: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예수라." 왜 군중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의 칭호를 반복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로마 군인들의 분노를 초래할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성문을 지나면서 조금 더 조용한 접근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행동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장 성전 뜰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56:7)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의 맹렬한 책망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7:11).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지만 '가짜 겸손'은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가 이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성전은 그의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난입하셨을 때 행하신 일의 중요성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물론 그분은 당시 성전 예배에 스며든 부패와 탐욕을 꾸짖으셨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그분을 구세주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사가 곧 끝나게 될 것임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이 되려 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과 의도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전에서의 맹인과 절뚝거리는 자들을 고치신 일은 상인들의 테이블을 뒤집은 것만큼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6-8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전투 전에 다윗의 적들은 그를 조롱하며, 심지어 맹인과 절뚝거리는 자들도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승리 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무엘하 5:8). 이 역사적 이유 때문에 맹인과 절뚝거리는 자들은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종려주일에 그들은 당당히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종려주일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 너무나 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성전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들 때문에 불쾌해했고, 아이들이 종교적인 규칙을 어지럽히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메시아적 선언을 외치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메시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하물며 성전을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왕 후보는 더욱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에 현 상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목적을 왜곡시켰습니다. 기도의 집이어야 할 성전을 도둑질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은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소서." 그들은 구원자이신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단지 테이블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셨습니다. 권력 없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했지만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8:2를 인용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하나님께 더 순수하고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기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3).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일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돌아보며 그것들이 다 이해되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적 왕이라고 믿고 흥분했지만, 곧바로 그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등을 돌렸습니다. 종려주일에 "다윗의 아들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은 불과 5일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뉴욕의 리더머 장로교회에서 사역한 고(故) 팀 켈러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을 강요하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 안내자, 상담자, 목자,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너희의 왕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나에게 왕관을 씌우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 하나다.'"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예수님이 재판과 십자가 처형에서 그들의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맹인들, 절름발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들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으로 순종하며, 매일 그분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묵상 질문: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 인도자, 상담자, 목자, 형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먼저 너의 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팀 켈러 목사)

1. 오늘날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 복음, ‘힙스터 복음’, 혹은 ‘메르세데스 벤츠 복음’과 같은 요소들이 진정한 왕인 예수의 복음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해야 할까요?